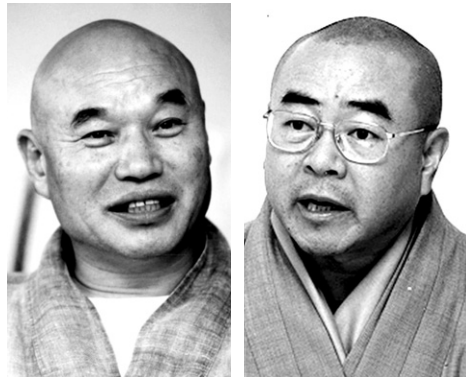


# 금강경, 유마경서 찾은 공정의 지혜



**유마경, 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무비 스님 지음 | 민족사 펴냄 | 2인8천원

**금강경, 깨지지않는법**  
 성본 스님 지음 | 민족사 펴냄 | 2인5천원



무비 스님      성본 스님

〈민족사 경전강의시리즈〉는 경전 강의의 수업을 들으며 불편했던 고통 해결을 위해, 한 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경전 원문과 독음, 번역을 실었으며, 또한 경전 원문 옆에는 어려운 한자 풀이를 함께 넣어, 옥편 없이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추가 메모장 없이도 강의 내용을 직접 필기할 수 있도록 메모 공간을 충분히 둔 것도 특징이다. 민족사는 앞으로도 경전강의시리즈를 계속 출간될 예정이다.

### 〈유마경〉… 대승불교 핵심 총망라

〈유마경〉은 재가 거사인 유마힐을 내세워 출가중심주의의 형식적이고 소승적인 부파 불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대승불교의 진의를 드러내고 있다. 유마힐은 세속에 있으면서도 대승의 보살도를 성취해 출가자와 같은 종교 이상을 실현하며 살고 있었다. 유마힐은 방편으로 병이 들었는데 문병 오는 사람에게 설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부처님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제자들에게 유마힐의 병문안을 명했지만, 일찍이 유마힐로부터 힐난을 들은 적이 있는 제자들과 보살들은 병문안 가는 것을 극구 사양한다. 유마힐은 비록 세속에

있지만, 대승의 궁극적 가르침을 자각하였기에 십대제자들과 보살들이 그를 상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마침내 문수보살이 부처님 명을 받아 유마힐의 병문안을 가게 된다. 두 사람은 상대적인 것에 얽매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대화한다. 여기에서 진정한 불이법문이 무엇인가를

### 무비 스님, “유마경 대승불교 선언서” 성본 스님, 난해한 부분 쉽게 해석

드러내는 유마힐의 침묵은 〈유마경〉의 압권으로 꼽힌다. 유마힐은 기존 출가 중심의 불교에 대한 비판을 통해 당시 불교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그것은 곧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소승적 삶을 탈피해서 남을 배려하고 세상을 먼저 구제하는 대승보살 정신을 밝힌 가르침이다. 이에 저자인 무비스님은 ‘유마경은 대승불교 운동의 선언서’라고 표현한다.

옛사람들은 〈유마경〉의 큰 뜻을 불이법문(不二法門)에 두었으나 저자는 ‘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생명들이 아프니 나도 아

프다. 산천조물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라는 가르침을 그 큰 뜻으로 삼고 있다.

〈유마경〉은 대승불교의 근본과 줄기들을 총망라해 불교공부의 진실로 돌아갈 바를 남김없이 제시하고 있다. 잠으로 화려하다 못해 현란하다고 서슴없이 표현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무비 스님은 〈유마경〉을 통해 갖가지 번뇌에서 고통받는 현대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고자 하는데 이 책을 펴낸 목적이 있다고 전한다.

### 〈금강경〉… 대승경전 요체 집약

〈금강경〉 법문을 최상, 제일 희유(第一希有)한 법이라고 주장한 것은 소승불교의 법문이 많이 유행되는 시대에 공(空)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아공, 범공, 일체개공의 경지를 깨달아 대승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설법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성본 스님(동국대 불교문화대학 교수)은 이렇듯 대승경전의 요체가

집약된 〈금강경〉의 난해한 개념을 명확히 짚어내어, 누구라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강경〉은 한국불교에서 가장 널리 읽혀지는 경전이지만, 그 심오한 깊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주 접하면서도 심리적 거리감을 느낀다. 하지만 〈금강경, 깨지지 않는 법〉은 모두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 주면서 어렵게만 느껴지는 〈금강경〉을 친숙하게 만들어 준다. 또한 저자인 성본 스님은 개념뿐만 아니라, 모든 대승경전을 꿰뚫어 강요, 해설한 점이 특징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제행무상(諸行無常)이다. 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언제 어디서나 매사의 모든 일이 새롭고 신선하고 진실된 생활활동이 이루어진다. 사람이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해결책이 안보이는 것은 어법하게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문제점과 사유가 부족한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로 판단해 포기한다.

원력으로 이루는 공정의 지혜는 중생을 부처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절망과 무기력의 포기에서 희망과 지혜로운 생활활동을 되살리는 힘이다. 선공 공덕을 이루는 원력의 힘은 중생심의 의심을 불심의 신심으로 전환하게 하며, 불가사의한 지혜인 부처를 이루고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도의 회향이 된다. 저자는 절망과 무기력에 지친 현대인의 괴로움을 달래줄 공정의 힘을 바로 〈금강경〉에서 찾고 있다.

김주일 기자

## “제철 재료로 해먹는 음식이 단연 최고 음식”

김치나무에 핀 행복

일운 스님 지음 | 담앤북스 펴냄 | 1만7천원



일운 스님 (전국 비구니 선문화 부회장 · 조계종 중앙총회의원)이 지난해 〈불영이 감춘 스님의 비밀레시피〉에 이어 최근 김치를 주제로 한 〈김치나무에 핀 행복〉을 펴냈다.

이 책에는 경북 울진 불영사 천축선원의 안거 수행과 더불어 불영사만의 특별 비법으로 버무린 84종의 김치 관련 요리 레시피가 담겨져 있다.

사찰음식은 식감을 높이기 위해 몸에 해로운 재료를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좋고 꾸준히 먹으면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며 과격한 성격도 변화된다. 몸이 더욱 건강해지고 마음도 따뜻해져서 행복해지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이웃도 함께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사찰음식에 담긴 의미다.

이 책은 불교의 역사 속에서 오랜 세월 우리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함께 발전해 온 발효음식 김치를, 불영사 천축선원의 안거 수행과 더불어 소개하고 있다. 신라 진덕여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불영사는 통해 일원의 최대 비구니 선원 도량으로도 유명하다. 나무를 캐고 밥을 짓는 등 살림 일체를 비구니 스님들이 도맡아서 한다. 일운 스님 밀로 출가한 비구니만 63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김치 요리에는 자세한 레시피가 함께 들어 있어 굳이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직접 가정에서 해먹을 수 있다. 사계절 내내 다른 맛과 모습으로 건강을 책임지는 김치를 통해 단순 음식 개념을 떠나, 그 하나하나의 소중함과 그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좋은 기회다.

책의 구성은 봄안거, 여름안거, 가을안거, 겨울안거 등 4편으로 나눠 계절에 어울리는 김치 및 김치활용 요리를 싣고 사이사이에 계절별 절 절 살림살이를 수행 이야기로, 삼화론, 예세이로 풀어놓았다.

저자 일운 스님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고 너무 바쁘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없고 음식의 중요성을



김장 김치를 꺼내고 있는 일운 스님

### 김치 요리 84종 레시피 담다 불영사 천축선원 안거 소개 일운스님, 매년 사찰음식전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스님은 “재료를 제철에 손쉽게 구해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이 좋아요. 봄에는 상치·숙·냉이, 여름엔 열무김치·민들레김치, 가을에는 가격도 저렴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가지·호박 요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역시 김치죠.”라고 계절 음식을 소개한다.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는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일운 스님은 건강의 비결로 역시 음식을 꼽았다. 그는 “불영사 하면 열무김치와 보리밥, 된장이 최고로 꼽힌다”며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고 영양도 충분하다”고 추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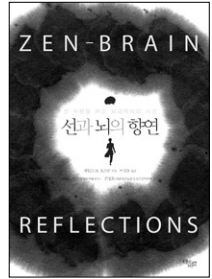
한편 일운 스님은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해 매년 사찰음식축제를 열고 있다. 김치·버섯·나물·장아찌 등 108가지 이상의 사찰음식을 소개하고 축제에 온 이들에게 무료로 공양을 제공하는 자리로, 올해가 4회째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선과 뇌의 상호적 관계 독특하게 재해석

선과 뇌의 향연

제임스 H. 오스틴 지음 | 이성동 옮김  
대술비람 펴냄 | 6인2800원



최근 종교적 체험 혹은 선 체험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뇌 영상 촬영 기술이 급격한 속도로 발전하면서 뇌 과학 혹은 신경과학

분야에서 종교적 신비 체험, 선 체험 등을 하는 인간의 뇌에 대한 구체적이고 수량화된 연구가 신속하게 활성화되고 있다.

이 책 저자인 오스틴 박사 역시 불교에 대한 해박한 이해와 오랫동안 해온 본인의 선 수행 체험을 바탕으로 선과 뇌의 상호관계를 독특한 관점으로 풀어내고 있다. 그의 핵심 탐구 영역은 선이란 무엇이고, 선 수행을 할 때 실제로 인간 뇌는 어떻게 움직이며, 명상과 깨달음의 경지에서 어떤 일들이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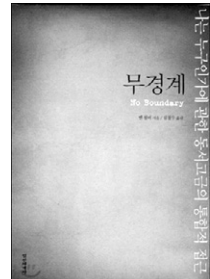
어나고 있는가이다. 오스틴 박사는 선이 갖는 신경 생물학적 기반과 그 신경 생물학적 바탕 위에서 이뤄지는 주관적 체험 현상을 단순화시키려는 목적 아래 최근의 뇌과학 연구와 뇌 영상 연구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해답을 탐색해나간다. 특히 선의 깨달음과 달빛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문헌적·예술적 전통의 탐색을 통해 새롭게 성찰하는 것은 저자가 가장 공들인 부분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선과 뇌과학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이 두 분야가 서로를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아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 9부로 구성된 이 책에서는 ‘내면적인 개별 자아’ ‘일반적 뇌 영상 연구가 갖는 한계’ ‘의식에 대한 탐구’ ‘의식의 변화에 대한 몇 가지 기초적 이론’ ‘의식 상태를 유발하는 약물 사용 유무’ ‘몰입’ ‘핵심적 통찰에 해당하는 견성과 깨달음’ 등에 대해 언급한다. 또한 마지막 제9부에서는 ‘달빛’이 견성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 동서양 심리기법과 치료 등 포괄적 안내

무경계

켄 윌버 지음 | 김철수 옮김  
정신세계사 펴냄 | 1만5천원



〈무경계〉는 정신분석에서 선불교에 이르기까지, 실존주의에서 탄트라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의 여러 심리학적 접근과 기법, 치료법을 두루 안 내해주는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인 지침서이다. 켄 윌버는 그것들이 책에서는 ‘내면적인 개별 자아’ ‘일반적 뇌 영상 연구가 갖는 한계’ ‘의식에 대한 탐구’ ‘의식의 변화에 대한 몇 가지 기초적 이론’ ‘의식 상태를 유발하는 약물 사용 유무’ ‘몰입’ ‘핵심적 통찰에 해당하는 견성과 깨달음’ 등에 대해 언급한다. 또한 마지막 제9부에서는 ‘달빛’이 견성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 아마도 문명의 여명기부터 인류를 괴롭혀왔을 이 물음은 오늘날 날까지도 인간에게 가장 성가신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 역사상 실로 무수한 답들이 제시되어왔지만, 그 어느 것도 아직 속 시원하게 우리의 존재론적 의문을 해결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답들을 일일이 검토하는 대신에, “나는 이러저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반드시 선행될 수밖에 없는 ‘어떤 작업’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스스로 ‘나’를 묘사하거나, 설명하거나, 또는 느낄 때마다 당신은 예외 없이 마음속에 다 일종의 정신적인 경계(境界)를 긋는다. 그런 다음 그 경계의 ‘안쪽’에 있는 모든 것을 ‘나’라고 느낀다. 반면에 그 경계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나 아닌 것’으로 느낀다. 다시 말해, 당신의 정체성은 전적으로 그 경계를 어디에 긋느냐에 달려 있다. 즉,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의 본질은 “당신은 어디에 경계를 설정했는가?”라는 의미인 것이다.

윌버의 첫 번째 저술인 〈의식의 스펙트럼〉의 핵심주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일반 독자를 위해 간소화 내지 대중화시킨 책으로, 일반 독자들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애쓴 저자의 노력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양지곡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ikukak.com

강화고려사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시간 : 21:00 ~ 03:30  
내용 : 법화경 전품 독송  
동참금 : 성의껏

천일동안 법화경 일천번 독송

한 가족 매일 축원 : 한 달 30,000 (전화/팩스 접수 가능)

기도·요양 하실 분 환영

진달래 축제로 유명한 고려산에 소나무가 많아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3km 거리에 강화 해안도로가 있고, 15분 정도 절 뒤편의 산으로 오르면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법화경 독송 수행 도량입니다

전화 032)932-3525 FAX : 032)934-3525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31-4

초음파 방역 시스템

기화방제소독, 방충, 훈증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각종 해충 및 환기미로부터 예방과 살충에 특화된 첨단 제품으로 문화재, 박물관, 사찰, 한옥, 전원주택, 목구조물, 공공장소, 기타에 사용합니다.

방역, 방제, 소독기술

초음파 기화방역소독기술은 정부에서 시행한 기술 개발과제로 상용화하여 보건복지부 보건기술인증 (HT제2008-0001/36호) 을 받은 환경보존형 공간 소독기술입니다.

초음파 기화방역소독기술 (내부 분사)  
초음파 기화방역소독기술은 열(고온)에 의한 기체화 방식이 아닌, 연속다중 초음파를 이용하여 방역약품을 실온에서 공기보다 가벼운 극 초미립자 상태로 기화하는 환경보존형 공간방역소독기술인 보건복지부 보건 기술인증기술입니다.

초음파 연무방역소독기술 (외부 분사)  
초음파 연무살균소독기는 일반적인 노즐과 공기충돌방식이 아닌, 압전(PIEZO)진동형 V-Hom Nozzle를 이용하여 방역소독약품을 분포도가 균일한 초미립자 상태로 분사하는 공간 살균 방역 소독기술입니다.

www.dongwhaind.co.kr

동화특수산업  
031)451-6232 팩스 031)451-6238